

풀리지 않는 이적료... 황의조 속타는 '새 팀 찾기'

몸값 63억원에 올버햄튼 주저... 노팅엄은 이적 조건 이견 黃, 출전 기회 줄어 실전감각 잃어... 월드컵 앞둔 벤투호 난감

새 동지를 찾는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0·보르도)의 거취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황의조는 소속팀 지롱댕 보르도가 지난 시즌 최하위로 강등돼 새 팀을 모색 중이다.

실제로 지난 시즌을 마친 뒤 6월 국내에서 열린 A매치 4연전을 위해 대표팀에 합류했던 황의조는 "최대한 빨리 이적을 완료해 새로운 팀에 적응할 시간을 찾으면 좋겠다"며 이적 추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황의조 이적은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2022-2023시즌 유럽 축구도 막을 올렸고, 이달 말 문을 닫는 여름 이적시장의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황의조의 새 팀 찾기는 과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도 매우 중요하다.

11월 개막하는 2022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하루빨리 새 동지를 찾아야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의조는 손흥민(토트넘)과 함께 대표팀에선 없어서 안 될 공격 옵션이다.

황의조는 보르도에서 2부리그 개막 후 2경기를 교체로 뛰었는데, 1라운드는 18분, 3라운드는 겨우 2분이었다. 경기 감각이 우려되는 이유다.

보르도를 떠날 것이 확실해지면서 선발 보다는 주로 교체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

황의조를 둘러싼 이적 루머는 적지 않았다. 앞서 프랑스 리그1 소속의 낭트, 마르세유와 독일 분데스리가의 마인츠, 샬케 그리고 미국프로축구(ML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등이 황의조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최근엔 프랑스 리그1 브레스트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올버햄튼 원더러스와 승격팀 노팅엄 포리스트가 황의조와 연결됐다.

하지만 정작 선수 본인이 프랑스 잔류보다 EPL 진출에 더 무게를 뒀던 현재는 올버햄튼과 노팅엄으로 차기 행선지가 좁혀진 분위기다.

문제는 이적료다. 재경년에 시달리는 보르도는 황의조의 몸값으로 최소 400만파운드(약 63억원)를 원한다.

유럽축구 이적을 주로 다루는 트랜스퍼마크에 따르면 황의조의 추정 이적료는 700만 유로(약 93억원)인데, 보르도는 최대한 이 금액에 근접한 이적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의조에게 관심을 보인 대부분의 구단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올버햄튼은 황의조의 몸값으로 200만 유로(약 26억6000만원)와 함께 유럽축구



6월 2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친선경기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에서 황의조가 브라질 실바와의 볼 다툼 끝에 첫 골을 터뜨리고 있다. 뉴스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면 100만유로(약 13억300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보르도와의 이적료 견해 차가 크다.

게다가 최근 포르투갈 국가대표 공격수 곤살로 게데스를 데려온 올버햄튼은 황의조 영입에 다소 소극적이다.

보르도가 물러서지 않는 이상, 올버햄튼

과 협상이 진전될 것 같진 않다.

노팅엄은 '임대 조건'이 걸림돌이다. 노팅엄은 황의조를 영입한 뒤 구단주가 같은 올림피아코스(그리스)로 임대료를 보낼 계획이다.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리그 최강팀으로 지난달 황인범이 이적했다.

하지만 EPL 무대를 선호하는 황의조는

그리스 리그에서 뛰는 걸 원치 않는다.

물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노팅엄과 보르도가 아직 협상 테이블을 접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격수 보강을 원하는 노팅엄이 황의조 영입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스카이데일리/뉴스



인터뷰하는 제인 구달 박사. 뉴스

"지적·구달 강연 듣자" EBS '위대한 수업' 시즌2 대장정 돌입

제러드 다이아몬드, 슬라보예 지젝, 제인 구달, 제임스 캐머런, 조 말론, 스티브 맥커리...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츠'가 이들과 함께 시즌2를 연다. EBS는 "오는 29일부터 1년간 시즌2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츠'는 EBS가 지난해 처음 선보인 강연 프로그램이다. 작년 8월 처음 방송된 시즌1에서 유발 하라리, 리처드 도킨스, 존 헤네시, 주디스 버틀러 등 세계 석학 42명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로 계층 간 지식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식 민주주의' '일상적 교육 혁명'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기획했고 이를 충실히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즌2에는 앞서 언급한 제러드 다이아몬드, 슬라보예 지젝, 제인 구달, 제임스 캐머런, 조 말론, 스티브 맥커리와 함께 헬레나 호치, 록산 게이, 마사 누스바움, 피에르 가니에르, 스킵 갤러웨이, 장 티롤, 앤드류 맥아피, 마리야나 마추카토, 맥스 부트, 애덤 셰보르스키, 포트리 스타인켈러, 오드리 탕, 카를로스 모레노, 데일 브레데센, 히사이시 조, 위화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뉴스

손흥민, 또 일부 첼시팬들에 인종차별 당해

손흥민(30·토트넘)이 또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됐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에스레틱은 18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겨냥한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이 지난 15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벌어진 첼시와의 2022-2023 EPL 2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코너킥을 차려 이동할 때 일부 첼시

팬들이 그를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

구체적인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토트넘 팬 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관중석에서 상의를 벗고 손흥민을 향해 눈을 옆으로 찌는 행동을 하는 남성의 사진이 퍼져 나가고 있다.

2-2 무승부로 끝난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해 79분 동안 뛰었다.

수년간 잉글랜드 무대를 누비고 있는 손흥민은 여러차례 인종차별의 희생양이 됐다.

지난해 4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전반 33분 에딘손 카바니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앞서 카바니에 패스한 스코트 맥토키가 손흥민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 드러나 득점이 취소됐다.

이에 화가 난 맨유 팬들은 SNS를 통해 손흥민을 비난했다. "DVD나 팔아라" "개나 먹어라" 등의 인종차별 발언을 담은 댓글도 등장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12명의 신원이 파악됐고, 이들은 사과편지를 썼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2-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공을 다루고 있다. 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